



요안노테일장

처음에도 가이스되도마 하나님파함고하니도난뜻하
나님에 라이도가처음에하나님파함고하민만물이말민
여다치여스니지온바노하나토말민지안꼬지으미업나니
라도에성명이이스니이성명이사람의빗치되어빗치이두
온디빗치우되어두온디난아지못하다라한사람이이스니
하나님이보닌바일홍은나안느라와서간증아되문빗출뛰
하여간증하여못사람이되도말민여밋개하나티가빗치안
이요오직빗출위하여간증하여나니라그는진광이니세상
에온쟈를빗치우나니라그세상에이서세상이말민여자온
밧지안으나풀운밧난쟈는곳일홍을잇으미라권세를주워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사니 이는 혈육으로 말임도 안이요 육신으로 말임도 안이요 사락의 뜻으로 말임도 안이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여는 쟈라되어 가육신을 일어나는 기은 총파진나로써 우리사이에 거하여 우리가 그영화를 본거시 아밤이나은 외아달의 영화갓타니라 하다 라요 안나간증하 여불티갈오 되이 끽니 말한 바자니니 뒤에 와서 날 압페 이스 문나보담만 져하 미니 그넉넉하 무로 우리다 바다 끽은 흥에 은총을 더하 미니 놀법은 모쇼로 말미여 주고은 총파진나는 예수 키리스토로 말미여 엇나니라 자고로 사람이 하나님의 본이 가업스되 오직 아밤의 품에 있는 외아달이 표명하나니 라하 다 라요 안나의 간증이 이것 탄거시과 유대인이 예루살 입에서 제사와 니위를 보는 셔여 물어갈오 되는 뒤라하나

뇨요 안 난 알고 괴이지 안 쟁고 갈오 되나는 키리스토 안이라
노물 우되 너는 뉘냐 이니 아냐 갈오 되안이라 그 선지냐 말오
되안이라 갈오 되너는 뉘냐 우리를 보닌 자 으게 회보호 기비
스사로 무어 시라 일이라 하니 갈오 되나는 이들 게서 불온 자
의 소리니 주의 길을 정직 게 하라 한자니 선지가 사야의 말
한 바갓 다후 다라 보너 물바든 자는 바리신인이라 쟁고 되
네 키리스토도 안이요 이니 아도 안이요 그 선지도 안이라
호면 엇지 밤팀례를 버푸나 뉘요 안 난 더 많호 여 갈오 되나는
물노 밤팀례를 버푸 되오 직보의 가온더 하지 못호 는 자는 뒤
에 와서 도덕의 신들미를 뉘 감이 푸지 못할자 가셨나니 라는 이
일은 거시 올단 밧건비 다니에서요 안 난 백팀례 버푸 는 땃이
라 이 톤날요 아니 예주자 괴게나 아오 물보고 갈오 되하

나님의 양식기 세상의 죄진쟈를 보라 이 노나 말한 바니 뒤에
온사람이니니 암페이스문 그나를 만져 하 미니 아지듯.
고오문출노써밥팀례를 버푸리미들이 살얼의 씨낫타나게
하 미라요 안니 쇠간증. 여갈오디니 성령이 비둘기 갖치하
날노나리 그 우에 머즈물 보고니 아지못. 여시되 오직 나를
부니 어울노써밥팀례를 버풀리. 난이 가니게 괴호. 여갈오
된비성령이니리 그 우에 머즈물 보리라 꾃. 성령으로 밥팀
례를 버푼다. 노고로니 보고이. 하나님의 아들 되울 간증.
하노라. 하다라이 튼날요 아니 다시 두테자와 함고 셔서. 예
수. 형. 하 물보고 갈오니. 하나님의 양식기를 보라. 하니 두테
자 그 말을 듣고 예수. 쫓초니. 예수도 라그 쫓초를 보고
갈오니 놈마 어슬 찬나. 난디. 땅. 여갈오디. 랍비라. 하니 신간

즉스승이라어디사느니잇^이가^을갈오^되나보리라^되이여^가
그사느바를보고이날에함고사니^이석^이가신시라^요안^이를듯
고^이 예수를좇는두사람에한나은시몬피들이동성안드^리
다라^되만져그동성시몬을만나^여갈오^되우리미신아들맛
뉘엿다^하니신간즉^이 키리스토라^인도^하여^이 예수의게가
니^이 예수보고갈오^되나^이의아딸시몬이란^이기파라일
거를^지니신간즉피들이란^이튼날^이 예수가리리에가^끄져
하^{다가}비립을만나^여갈오^되나^들좇^즈락^하니^이비립^는비시
다사람이니^{안드}랴파피들파한^고을이^라비립^이나^단이^를
만나^여갈오^되모^소가법에션^지파^말한^바사^람을우리^만
나^나나^살잇^요썹^이아^달 예수라^하니^나단^이가^갈오^되나^나
살^잇의^능이^션한^거시^나나^나비^립이^갈오^되와^보다^하니

예수나단이 가늘이 물보고 갈으쳐 갈오디 보라진이 살일사
람궤풀업은 쟈라하니 나단이 가갈오디 엇지나를 아나니잇
가 예수디답호여 갈오디비립이 四九니를 물으기전에 무화파
나무아레셔 니비를 보왓노라하니 五九나단이 가디답호여 갈오
더스승님은 하나님의 아달이요 이살일의 왕이라 五예수
갈오디 니비를 무화파나무아레셔 보왓노라 五물위호여 끗
밋나냐장차이에서 고물보리라하 五고 죠갈오디 니실노비의
끼꼬하나니 장차하늘의 열트 하나님의 사쟈가 인자우에
올우며 니리 물보리라

요안니네이장

삼월만에 가리리의 가나에 혼연이이스미 예수어媽이 참
예호고 예수티자로더부리 죽한청호 물보고 뜯게나아가

나술아다호엿는다

예수의 어媽이 갈오된 터의 술이 업

다하니 예수갈오된부인은나파무삼상판이요니 씩가늘
으지못호엿나이다호니 그어媽이종터리갈오된터니의게
막한바를횡호라하다라거^{*}괴색항여삿시이사니유^{*}터사람
의정결한법인테각각한말가량드는지라 예수갈오된물
노써독을친우라이여친우니거의님씨게됨지라갈오된즉
시파방의게로펴보니라호미이여가져가니파방이물이변
호여술이된거술맛보니어디로온줄을아지못호되오직물
가져간종이아는지라파방이신냥을불더갈오된물온만져
죠은술노써나위꼬직이취호미나존술을나위는네비난죠
온술을직키여이제새지닐[†]르다호다라이예수첫정죠를
가리리가나에셔횡호여그영화를낫타니이니네자끗잇다

라 그 후에 예수 그 어 맘과 동성파 ^{파티} 자로 데 부리 합니 가 멀
늘에 네 으리 거 한지 오 린 지 못 허여 유 ^유 디 사람의 냄는 절이 갓
가온지라 예수 데 루 살임에 올 나가 ^나 성 ^성 린에 서 쇼와 양파비
들기 파는 쟈와 멋돈 밧구는 쟈 안 저 시 물 보고 예수 농이로
써 첫 직을 만 그 러 사람 파 우 양을 다 성 ^성 린에 는 췄 ^쫓 고 도 돈 밧구
난 자의 돈을 기 우 러 티고 그 조 주를 새 구 러 티며 비 들기 파는
쟈게 갈오 ^되 이 물건을 가져 가고 나의 아 밤의 집으로 써 무역
호 난 집을 만 그 지 말 나 ^되 록 한 바 ^되 디의 집을 위 ^되 여 마음 싸나
를 삼 길트 시 ^되 히 리라 ^되 히 물데 자가 성 각 ^되 히 유 ^유 디 인이 갈오 ^되
네이를 힙 ^되 히니 꾼 무 삼 징 죠로 써 우 리 게 보이 갓 난 야 ^되 히니
예수 디 담 ^되 히 여 갈오 ^되 비이 성 ^성 린을 헬면 나 꾼 삼 일에 서 우 리
라 ^되 히니 유 ^유 디 인이 갈오 ^되 비이 경 ^경 린을 사 습 ^습 뉴 린에 지 엿는 디 ^되 비

삼일에서 우갓나냐다못 예수의 말한 바는 그 몸성년을 살
으쳐죽 우무로 끌어는 씨여 데자 그이 말이스런 성각하고 끼
경에 쓴 바와 예수의 말을 멋다라 예루살임에서 넘는 절연
석에 이슬썩여 수다 한사람이 흥한 바 장조를 보고 그 일 홀을
밋으나 다못 예수밋자 안이 문모든 사람을 알미요 사람
간증한 자를 쓰지 안으론 스사로 사람의 속을 알미다라

요안니데 삼장

바리시사람이 이사 되일 홀을 니고디 무니 유디사람의 판원
이라 바음에 예수에게 나아가 갈오디 탑비야 우리 난센성
이하나님으로 봇터온스승인 줄 아노거시 하나님이 합고
안이호면 능히호난바 꾱이한정조를호지못호리라호거날
예수되답호여 갈오디니 실노비게얼이나니 사람이 다시

나지안으면 하나님의 나라을 놓히보지못하니라. 니
니코디무갈오되 사람이 늘 그만잇지 다시나며 능히 두번이
맘의 빛에 들잇다나리요 예수답하되 실노네게일으
나니 사람이 둘파령으로 나미안이면 능히 하나님의 나라
에 드지못하니 육신으로 난자는 육신이 요령으로 난자는 난
령이니 네게 다시는 다물고 괴히 네기지 말나 바람이 임의
로 불미비 그 소리 눈듯고 어두로 오며 가난줄을 아지못하니
나령으로 난자이 갚타니라 니코디무답하 여 갈오되 엇지
능히 이런일이 이사리요 예수답하 여 갈오되 네이 살일
의 스승으로 이런일을 아지못하니 실노네게일으니
니아는 바를 말하 고 몬바를 간증하나 네가 니의 간증을 맛지
안 코세상의 일을 말하 여도 대 및지 안 커던 하늘의 일을 말하

면 베었적 있으랴 하늘에 올여 자업사 되오직 하늘 노년 랜자
난곳 하늘에 있난인자니라 모소가를게 셔비암듬 갖치인자
도 쇼한들니 물보리니 무론민는 자는 죄를면하고 길이 살을
여들거시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하여 그 외 아달을 주어
무론민는 자는 죄를면하고 길이 살을 있게 하미니 하나님
이 그 아달을 세상에 니려보니 미세상을 죄주미 안이요 세상
이 틱로 말미 연구 완케 하 미니 믿나니는 죄를 주지 안고 믿지
안는 자 난이 무죄를 주문고 하나님 의 외아달의 일홈을 믿
지 안으 미라 빛치 세상에 하 문세상 사람이 물선 하 물위
호민 빛보담어 두운 거슬 사랑 하 그 죄를 냉 하 미니 물론
악을 험 하 고 빛출미이 비기은 자비세 나아 가지 안는 거손 그
험한 바를 견좌할가 저퍼함이요 누리 참되 물 험 하 는 자는 빛

체나아가 그일을발견

하나님으로말민여향하.미라그

후에예수데자로터부려유되땅에일으리함고머무려밥
팀례를버푸니요안느는이노에서사림어갔가온디쏘한밥
팀례를버푸문그곳에물어만으미라사람이날으리밥풀레
를밧으니요안느사로옥에느리미업는지리요안느의데자
유되사람으로터부려정결한일릉의눈호고요안느으게나
아가갈오되밥비야티스승파함고율단밧개셔곳간증한밧
자가이제밥팀례를버풀으미뭇사란이나아가나이다하니
요안느답히여갈오되하날이주지안으면사람이가이잇
난바업나느의나를간증.여써느말호기를느가 키리
스토안이요오직그암페보느룰바든쟈라신무잇난쟈는신
방이니신방의벗이셨다가신방의소리를듣고심이줄거하

나니니 이제 즐기미가득 ^하 엿노 _라 ^다 난반다사성 ^하 고나난
쇠할이니 우으로 온쟈 난만 물의 우에 잇고 ^하 쌍으로 말민 ^하 난
쌍에 봇나니 그 말 ^하 눈바도 쏘 ^하 쌍에 봇티시 되오직 ^하 발노
봇티온자는 만물의 우에 잇나니라 ^하 본바와 들은 바를 ^하 간증
호되 간증을 밟는 사람 ^하 이업사니 그 간증을 밟난 자 난하나님
으로 참되 물삼나니 ^하 하나님이 보낸 바자 가 하나님의 말씀을
괴술 ^하 문 ^하 하나님이 성령으로 써 ^하 뜻을 주미 할량업사미라
아밥이 아달을 사랑 ^하 여만물을 노써 그 손에 부탁 ^하 니 아달을
잇는 자 난영성이 있고 ^하 미지안는 자는 영성을 보지 못하나니
오직 하나님 ^하 의 노 ^하 미고 ^하 우에 잇나니라

요안니테사장

쥬바리식 ^하 임이자 괴의 밥팀례버 푸우로데자모이미요안니

보담만 담들이 물아 되다 못 예수가 스사로밥 텁례를 버푸
미안이요 오직 데자 가버푸 미라이여 유드를 써나 다시 가리
리에 가미 반다시 사마랴를 지닌 난지라 사마랴의 한성에 널
으니 일흘은 시칼인덕야 꼽이 그 아달요셉을 준 바밧치갓 가
온지라 거괴야 꼽의 우물이 이사니 예수를 흉함으로 써핍
꼰호여 우물우에 안자니 씨가 낫지라 사마랴부인이 와물을
깃거 날 예수일터 갈오디너나를 마시게 하라하니 씨여 테
자는 성에 드려 갓난지라 사마랴부인이 갈오디너는 유드사
람이라 엇지 마시물니 사마랴부인으게 구하나뇨하니 난
유디 사람이 사마랴 사람으로 더부러 서로 왕누 치안으마라
예수디답하여 갈오디네 하나님의 은사파밋비게 마시물
챙한쟈가 난줄 알면 네반다시 티으게 구하라더 난곳 산들

노써너를주리라 부인이갈오되 쥬야물뜰글의사업꼬쏘
우물이김푸니무어스로산물을어드리요녕감이엇지우리
조양야곱이우리를이우물을주어자고파자손파가축을다
마시게한이보담코뇨하니 예수되닭하여갈오되무론이
물을마시는쟈 난다시갈하되 오직나준눈바물을마시는쟈는
길이갈차안으로물이근원을일더나솟구여영성에넓은다
호니부인이갈오되 주야청전위이물노써나를주어갈차
안게하꼬도여과와물깃지안게하소서 예수갈오되가셔
네짓아비를불더이여오라부인아디닭하여갈오되느짓아
비업나이다 예수갈오되네짓아비업다하미올토다비일
즉다삿짓아비가잇다니지금잇는바쟈는짓아비가안이니
네말이실노올타하니부인이갈오되 쥬야나보니끗션지

뇨못 눈사람이 업다 라부인 이동에 를 거고 두고 성에 드려 가
사람 으게 일터 갈오 디 와서 한 사람을 보라 나이 힝한 바로 써
다 닌 게 말호 눈쟈 가 이 키리스토 가 아니냐 뭇 사람 이 성에 나
에 수 으게 나아 갈식 써여 테 자 청호 여 갈오 디 랍비 눈밥 잡수
소서 예 수 갈오 디 나 난 먹을 거시 이 사나이 의 난 아지 못 할
바니라 흐니 데자 서로 일으 디 사람 이 이서 밥을 엿 투엇 나닛
가 에 수 일터 갈오 디 나들 보 난 이의 뜻을 힝호 여 그 공을 일
루면 나의 냥식 이 라네 엊지 넉 말을 잇다 가 거 틀 써 가니 르풀
말 흥지 안나 니니 놔의 게 말호 나니 눈을 드리 밧틀 보 라 이 무
회여 거 두가 시니 거 두 눈쟈 삵술 바다 꾹석을 싸 아영성에 널
으문 시문 쟘와 거 두는 쟘파 함과 즐겨 하리 니이 눈 속 담에 일
너 시도 터 눈시무꼬 이는 거 둔 다 흐 미 올은 지 라 닌 너의 를 보

로다우리조상이 이산에 절호 엿거니 와오직 통감은 맛당이
절할곳이 예루살임에 잇다호니 예수갈오디부인아비나
를잇으라 씨장차늘으니 베아밤으게 절호 미이산에도잇지
안꼬예루살임에도잇지안이한지라너의난절호난바를아
지못호 되우리 난절호 난바를아나니구완호미유디사람으
로말미 미라 씨가 널으리니 입세로다 참으로 절호 눈쟈 눈령
파실노써 아밤으게 절호 리라 하나님은령이니 절호 난쟈
령파참으로 써 절호 미맛당호니 라부인이 갈오디니 미시야
기리스토라 청호 는쟈늘으려 올줄아나니 데늘으면 다우리
게고호리라 예수갈오디 널노더부러 말호 는쟈너 가기로
다 써여데 자가와서 그부인으로더부러 말함을 괴괴히비기
나글어나 주무어슬구 하며 엊지부인으로더부러 말호나

너여 엊부지 안인 바를 거두고 말은 사람이 엊부고 뇌의 가 그
잇부풀니 으미라하 다라 거고잇는사마랴 사람이 만이밋으
문부인이 간증한바 말이 나의 흥한바를 봐가다니 게말한다
흐미라고로사마랴사람이나아와함고 이사률구 하니이여
거고뉴한지잇틀에 그도를잇는쟈더욱만아부인으게일오
디이제우리가비밀을잇는거시안이요친이듯고그세상구
완호.울실노알미라하 다라 그잇틀을지니여거고를썩나가
리리로가문 예수스사로일오디션지가몬토제이서존함
을보지못한다.흐미라가리리에불으니썩여가리리사람이
영접.흐문예루살임에셔절고여행한바를다보꼬 봐들이 쏘
한절고의나아가마다라 예수다시가리리땅가나에으늘
니풀노써술만드럼꾸지라한진성이이서그아풀이가릴남

의 셔 병 할 시 예수가 유디로 봇터 가리리의 눈 으렷다 물 듯
고나 아가 그 아 달 곳 치 력 가 르 구 헤 니 이 눈 아 달 이 저 이 죽 게
되 르 린 호 미 라 예수 갈 오 되 고 고 한 정 죄 와 이 상 헤 물 보 지
안 아 시 면 너 의 멋 지 안 으 리 라 헤 니 그 전 상 이 일 으 되 쥬 야
나 의 아 달 숙 기 전에 청 전 터 가 서 이 다 예수 갈 오 되 가 라 미
아 달 이 살 앗 나 니 라 그 사 람 이 예수의 말 헤 눈 바 를 멋 고 갑
시 길 씨에 그 종 을 만 니 여 고 헤 여 갑 오 되 주 인 의 아 달 이 살 앗
나 이 다 후 거 날 그 어 느 셔 여 나 으 롬 봄 은 되 갑 오 되 어 전 미 시
에 열 병 이 물 터 갓 나 이 다 헤 니 그 아 밤 이 예수 가 너 의 아 달
이 살 앗 다 말 헤 던 쎈 출 을 알 고 테 와 멋 혼 가 이 다 멋 다 라 예
수 유 디 로 봇 터 가 리 리 에 널 으 리 고 징 조 헝 한 바 가 이 두 번 치
다 라

요안는데오장

그 후에 유덕사람의 절과 이서 예수예루살임에 나아가니
예루살임에서 양문이 껏한 뒤 한동시 이사니 일홍은 품리방
업으로 뱃스다라 뜻식다 삿업 낭이 이사니 그 안에 병호 난자
소경파 안존방이 와파린 자가 만은 되거고 한나병호는 자가
삼습 팔년이 된 자라 예수고 누어 심을 보고 이갓 치오린 줄
을 알고 갈오디 베 낫고 져하나냐 병호 난자 디답호 되 주술
동할 씩여나를 못드리 뜻식니 릴사람이 업서 달은 사람이나
보담만 져니 리나이다 예수 갈오디니 릴 베 누운 상을 가지
고 가라하니 그사람이 꾃나으 민상을 가지고 가니 이 날은 사
밧일이라고로 유덕사람이나 온 자게 일고 갈오디 오날은 사
밧일이라 베상을 지미 합당치 안타고니 디답호 되나를 낫게

한 쟈 가상을 가지고 가라다 라 데 를 어 갈 오 디 너 를 명 헤 여 상
을 가지고 가라 한 쟈는 뉘 노 나은 쟈도 뉘 줄을 아지 못 헤 문 그
곳에 사람이 만함이요 예수피 헤 미다 라 그 후에 예수성
된에 서 만 닌 여 갈 오 데 보라 베나 아스 니 나 시 난 죄에 범 치 마
라 접 푸 건 뒤 후 환 이 터 육 심 할 가 헤 노 라 그 사람 이 유 뒤 인 으
게 나 아 가 고 헤 되 나 를 낫 게 한 쟈 가 예수라 헤 니 고로 유 뒤
인 이 예수 를 군 박 헤 문 이 눈 사 밧 일에 헝 헤 물 인 헤 미 라
예 수 갈 오 디 나 익 아 밤 이 볼 뉘 일 을 이 제 세 지 헝 헤 여 시 미 닌
쏘 한 헝 헤 노 라 헤 니 유 디 인 이 터 육 죽 이 고 져 헤 문 그 사 밧 일
을 범 헤 여 사 며 쏘 하나님 을 그 아 밤 이 라 헤 고 자 괴 가 하
나 님 파 가 족 다 헤 미 라 예수 디 담 헤 여 갈 오 디 닌 실 노 데 의
게 일 으나 니 아 달 이 아 밤 이 헝 헤 물 본 외에 눈 자 괴 로 능 헤 헝

치못한 다. 문아밤아 흉한 바를 아달이 죽한 흥. 미라 아밤
이 아달을 사랑. 여자 괴 흉한 바로 써다 보이고 죽이 일보담
크무로 써보이 미니의 가괴 타할리라 아밤이 죽은 자를 다
시 살게. 미아달이 죽한 이갓 치임의로 살게. 미요 죽은 아밤
이아모 사람도 판죄 치아이. 흥고 판죄로 써다 아달의 깨맞치
미웃 사람아 아달공경 흥 기를 그 아밤공경 함갓 치. 흥라. 흥니
아달를 공경 치안는 자 난 그 보낸 아밤을 공경 치안으 미라.
실노비 게일이나 니니 달을 뜻고 나를 보낸 이를 멋난자는 영
성을 엉고 죄에 빌으지 안으며 사대로나와 성대로 드리가 나
니라. 니 실노비의 게일이나 니 셔장차니. 드리니 인자로 다 죽
은 자. 하나님 아달의 소리를 들을 지니 들른자는 사나니라
아밤에게 성명이 이사 미도 아달을 준 성명이 자과의 이 삼갓

고 쏘 권세를 주워 써 판좌를 헹게 함은 그 안자 되 마니 일 노 써
괴 괴 타 말 나 썩 나 르 니 무 린 안에 잇는 쟈는 다 그 소리를 뜻 고
나 오 며 션 을 헹한 쟈는 다시 널 어 성명을 엊 괴 악을 헹한 쟈 난
다 시 널 어 죄를 정하 나니 능히 자 괴로 헹한 바 안이 요 들은
바 를 쫓 차 판죄 함이 니 나의 판죄 함이 올 으 문 니 자 괴 쟈을 구
호 미 안 이 요 나 를 보 낸 이 의 뜻을 구 호 미 라 니 가 만 일 자 괴로
간 증 호 면 나의 간증이 참이 안이 루 되 나 를 간 증 호 눈 이 가 이
사 미 나 의 간증이 참인 줄을 아노 라 너 의 사람을 요 안 니 으 게
보 니 여 대 의 진 니 를 간 증 호 여 시 나 글 어 나 니 가 간승은 사람
으 게 밧지 안 니 니 다 못 이 틀 일 니 데 이로 구완케 호 미 라 데 는
불 이 빛 치 운 등 인 니 너 의 잠간 그 빛 츠로 희락 호 여 시 나 다 못
나 의 잇 난 간증이 요 안 니 의 간증 보 담 콤은 아밤이 나 를 주워

써일을일우게호. 미니꾼니가 흉한바에이나 풀위호. 여아밤
 이나보니 물간증호. 미요도나를보면 아밤이 쇠한나를간증
 호는이너의 그 소리도 듯지못호. 옛고 그 풀풀도 보지못호. 고
 그도도네 마음에 뉴호. 미업사문 그 보니 바를밋지안. 이라
 네의 성경을구삭호. 기는 그 가운디 영성을터 들가뜻호. 미라
 이 쏘한니가 간증호. 되너의 즐거니게나. 아와 영성을엇지안
 이호. 니니 영화를 사람으게 밟지안. 으나 물어나니. 그의 마음
 에 하나님의 사랑업사물 아나니. 니 가나의 아밤이 엘홀으로
 써와시되니. 의나를 밟지안. 이호. 니 만약 달은 사람이 자고 일
 훔으로 써오면. 니의 바들이 라. 니의 서로 영화를 밥드미. 호을
 노하나님의 게로 오는 영화를 구치안. 쟈었지 능히 멋드랴
 니. 니의 를 아밤에게 아리울줄 노뜻호. 지 말라. 니의 를 아리울

자는 것 너의 믿는 바 모소니 라만 약 모소를 믿든 즉 반다시 나
풀밋드 미니 그 쓴 바 자를 인호 여나를 가라 치미라 만약 그 글
을 믿지 안으면 엇지 나의 말을 믿드려

요안부비독장

그 후에 예수가 리리 바다 옆 건네니 깃디 비랴 바다 이다 허
다 한사람이 쫓즈니 이 난 그 병은 자 으게 징조 흥한 바를 인함
이라 예수 산에 올노 테 자로 함고 안자니 씨난 유교 사람의
넘는 절이 것거온지라 예수 눈을 드리 허다 한사람 이나 아
오풀보고 비립으게 엘더 갈오니 우리 이니 서썩을 사서 이사
람을 먹일이 요이 말은 떠를 시엄하 미니 스사로 잣차 흥할 바
풀알미라 비립이 디답호 되이 습금에 치썩으로 써조금식이
라 도 죽지 못하 갓나이다 하니 씨여 테자 중한 은시 몬피 들

의동성안드 래라일니 갈오니 여고한아희가 물리썩다 쟁리
 와물고기 두리 가이사나 다못일노티 여러 사람에 엇지호리
 잇가 예수 갈오니 이사람을 다안지오라 그곳에 풀이 무성
 한지라사람이 다안자니 수가 오천이라 예수 그썩을 가져
 축사하여 안존자 멸을 돈 아주꼬 물고기도 쏘한갓치호여 그
 후끄저호게하니 뭇사람들이 빙몰운지라 예수 테자터레
 갈오니 그남은 거살버리지 말나호미 이여 거둔죽 열두 광지
 에차시니 꾼다섯기 볼리썩을여러사람이 먹고남은 바라사
 랜이 예수의 향한 바징조를 보고 갈오니 이실노세상에 님
 할선지로다 예수 장차사람이 강권여국왕삼을 줄을
 알고호율노 다시 산에 가니 져풀리여밋흔지라 그테자니 려
 바다에 날으리 빠에 올나바다을 건네여 가발남으로 갈신밋

어두우미 예수는 사로 놀이지 못하엿노니 바람이 맹렬호
여 물결이 일거 날데 자비를 저어 습니 나가다가 예수바다
을 밟바비 예것거 우물 보고 놀노니 예수이 여 갈오 되이서
로다 두려워 마라 하니 테자 것거 마자 비에 올나 잠시간 빙갈
곳에 불이 렸다 라이 튼날듯사람이 바다 건네 두년 에셔서 보
니 데자 올은 비외여는 말은 비 난 업는 터 쪼본죽 예수는데
자와 학과 비예 올이 지안이하고 그테자만나 아가는지라 글
이나 두어 빕 가더 비랴로 봇터 오마 주의 축샤하고 끗사람
썩은 아먹이던 곳이 것거 원난지 래 끗사람이 예수와 테자
나 다 거 꾀잇지 안으로 봉보고 되지여 비에 올나 간 뱐남에 불으
리 애수를 찾다가 바다 건네 두년 에서 만니여 갈오 되 랍비
야 이너 썩여 물이 렸나뇨 예수더 담호여 갈오니 실노니

이 개일은 니고의나를 차즈문고이 한정조를 위하 미안니
 요 오직 썩 먹고 빙부르 미라 훼 멀할 냉식을 위하 여뇌꼬 치말
 고 영성에 끌을 냉식을 위하 라인자 가장 차비의를 줄 밧자니
 아밤은 꽃 하나님이 니데 으게 인 텃난이라하니 웃사람이
 갈오되 우리 맛당이 엇지하야 써 하나님의 흥하 물하리요
 예수되 담하 죄 갈오되 그 보신 밧자 를 밋으면 꽃 하나님의
 일출 흥하 미니라하니 갈오되 랍비야 무 삼정조로 써 우리를
 보이며 무어 살 흥하 여밋게하 갖나뇨우리 조상이 들게 셔마
 나를 먹은 거시 생 생에 이 름 나치 나하 날 노말마 여썩을 주워
 먹었다하거날 하 예수 감오되 니 실노너의 개일이니니 모 쇼
 가 너의를 하 날 노말민썩을 준 거시 안이요 오직 나의 아밤이
 하 날 노말민참썩을 떠이를 준 거시니 하나님의 썩은 하 날

노말민여느린성명을세상에주미내라하니_{갈오}니_{주야}
이썩으로써늘우리를주소서 예수갈보더나는성명의썩
이니느게나아오난쟈는주리지안이하꼬나를밋난쟈도기
리갈_송지안나니_글어_호물_나니_의악_의게말_하예도_되악_의노이
려나를밋지안이_하나_아밤이나를준바쟈난다_나비_나아오
나니나아오난쟈난나가맛참_니쏘지안이_할지니_나가_하날
노노_리미자괴_뜻을_힐미안이요나_를보난쟈의_뜻을_힐
미니나_를보난쟈의_뜻은그나_를준바쟈를_나가_할년_바업시
마즈막_날에다시날_개하미라이_는나_아밤의_뜻이니_아달을
보고밋눈쟈는다영성을_어터마즈막_날에_나나라_하니_유
된인이그_스사로_하날_노못_터느린_썩이라_하물_듯꼬시비_으
여_같오_되이_요섭_의아_들예_수의_그부_논울_흐우_리가_아난_바

가아니냐엇자하날노니렷다일이나뇨하니예수단답하여
 갈오되서로시바치마라나를보닌야밤이을지안아시면사
 랍이능히너게나아오미업슬거시요도니가마즈막날에닌
 다향문연지그글에일터사되티다 하나남의가라치물닙
 엇다하니물온야밤으께듯꼬비오노자는다니게나아오나
 니시린이아밤을보미안이되오직 하나님으로말민쟈야
 아밤을보왓나니라니너의계실노일이나나를잇는쟈는
 영성이이슬거시나는이성명의썩이라너의조상은들께서
 마나를먹고죽어시되오직이하날노니린썩은사람이먹고
 죽지안나니라나난하날노니린사난썩이니이썩을먹는쟈
 눈길이사난이라니쟝차줄바썩은꿋나의꼬기라나를세상
 에성명을위하여준거시니라하니유덕인이서로닷토와갈

오 뒤 티 엉지 능하 그 고기로 써 우리를 주워 먹이 랴고로
수 말 오 뒤 니 실 노니 의 게 일 으나 니 인 자 의 고 기를 먹지 안 이
흐 며 그 피를 마시지 안 이 흐 면 상명이 너의 속에 업고 나의 고
기와 피를 먹는 쟈 난 영성아 잇고 니 가 마즈 막 놀 놀 게 흐 라
나의 꾼 기를 난 실 노 먹을 거 시며 나의 피도 실 노 마실 거 시 나의
꼬 기를 먹으 며 피를 마시 난 쟈 눈 놀 게 거 흐 고 니 가 쎄 한 티 으
게 거 흐 나니 쟈 안 아 밤 이나 를 모 님 갓 치 니 쎄 아 밤 으로 말 미
여 사 아나니 이 갓 치 나를 먹는 쟈 난 쎄 한 나를 날 미 여 사 아나
니 라 이 난 하 날 노 거린 썩이 니 그 의 조상 이 마나를 먹고 죽 음
파 갓 지 아 이 흐 니 이 썩을 먹 난 쟈 난 길 리 사 나니 라 흐 니 이 눈
예 수 가 밤 남 회당 에 셔 갈 으 칠 썩 여 말 한 바다 라 대 자 이 를 듯
고 만 이 일 오 뒤 어 려온 지 라 이 말 이 연 구 능히 들으 리 요 흐 니

예수스사로데자 가이를사바호물알꼬갈오디아너의게스
 린거시되나냐만약인자가본체로올나가면엇자호리요디
 키살게호는쟈난령이니육신은니익호미업나니라너비의
 게일이난바말은령파싱명아라오직비의가온디밋지안는
 쟈잇다호니아는 예수가처음못터밋지안는쟈가뉘며팔
 쟈가된줄을알미다라쏘갈오디너비의게일은거슨나를아
 밤이준거시안이면사람이능히나비나아올쟈업스리라하
 나일노말미여테자만이도라가고다사좆난쟈업다다 예
 수열두데자으게갈오디비의쏘한가꼬져호나냐호니시몬
 피들이되답호영갈오디 쥬야우리가여디로나아가리요
 쥬으게영성의말이잇고쏘 하나님의성잔줄을우리가밋
 꾸아노라호니 예수더답호되너비의열두사람을퇴호지

안 앗나냐 만은 너의 가온디한 사람이 민귀니라 하니 그 일오
미시몬의 아달이 속 랴 유디를 갈으 치민디 토열두 테자에 한
나이 되여 양차 예수를 팔자다라

요한니데칠장

그 후에 예수가 리리로 단니며 유디에 가지 안코져 하니 이
난 유디 사람이 죽이 고져 하마라 유디인의 양막 절고 가갓 가
와 시민고로 그동성이 갈오디여 괴를 떠나 유디에 가셔 테자
으게 힝하 난 바일을 보이다 이 일을은 밀한디 셔 힝치 말고 스
사로 낫타니 고져 하라 네 만약 일을 힝할 진디 맛당이 세상의
낫타닐지니라 하니 디기 동성도 믿지 안으마라 고로 예수
갈오디나으 썬는 날으 지못호 고너의 썬 난느로 편하민 세상
이 능히 너의 난 미워 안이하고 오직 나를 미워호 문느가 그 힝

한바자의 악을 간증^으. 미라^드의 난이 절고 여가 되나 눈이 절
괴여 가지 못 할 거시나의 썩 가차지 못^흐. 미라 하다 라^이를 말
하고 인^흐 여가리리 예거^흐 다니 동성이 간후에 터^도 한 절고^스
여나아가되 오직은 밀^흐 고 낫타^나지 안이^흐 니 유^우 디인^이 절
괴를 차자 일^으 되^니 터^어 되^는 요^으 뜻^스 사람 가온^니 의 돈이 만아
혹은 일^으 되^니 션^스 한 사람이라^흐 며 혹은 갈^으 되^니 안^으 라 빅^스 성을
풀^니 네^게 한다^흐 여^니 발^기 말^하는 사람 이업^사니^이는 유^우 디 사람
을^을 두^려 워^흐 미다^라 젤^기 중^을 당^흐 여^니 예수^성頓에 올^나 가
갈^아 치^니 유^우 디인^이 괴^특이^네 계^거 갈^오 터^이 사람 이^비 오^지 안
코^잇 지^글을^을 아^나 놈^으 예^수 터^되 담^흐 영^갈 오^니 나^의 가^라 치^는
거^시 자^괴로^흐 미^안이^요 이^나 를^보 낸^쟈로^말 마^여 흐^미 니^사
랑^이 만^약 그^뜻 을^좇 촌^족 반^다 시^이 가^라 치^물 알^니 라^흐 하

나님으로도 말마이 며혹니가 스사로도 말 〇 나니 스사로 말
하난쟈는 자고의 영화를 구호 되오직 보닌쟈 으게 영화를 구
호는 자는 참이요도 그 마음에 올치 안으미 업슬지니 라모 쇼
나비의 를 둘법 주지 안앗나니 다못비의 난 둘법을 힝호는 사
임은 업고 나죽이 기만도 모호문었지 미뇨호니 뭇사람이 되
古 ト 되네 귀신을 품었다 뉘가니 죽이기를 노모호나니

에 수녀답히여 갈오되니 원족 한일을 헝 〇 미비의 가고 꾀타
흐니 모쇼가비의 를 할례를 준거 시고 모쇼로 말마이 미안이
요이 조종으로 말마임이 가비의 가사맛일에 할례를 밟고 모
쇼이 구레어 그려 치풀면 〇 여신죽었지 호여나의 사맛일에
시라 벼꽃치를 노호나니 외모로 써판단치 말고 이의도 써판
단 ト ト라하니에 뚜살입에 사람 이이시 갈오되니 려가 뭇사람이

죽이고 죽었던 바자 가난이냐 이제 턱 가 말을 말기 히 미 뜻사
림이 더부러 잘 할 바가 업사니 엇지 판장이 그 기리스頓 줄을
실노 알니요 대 ^대 _대 콧 이 사람의 온바를 우리 가아나니 키리스토
가 널으면 사람이 그 온바를 알자 업나니라 하니 예수 성년
에서 갈아 쳐 불 ^불 _불 갈오 ^오 _오 니의 날파나의 온바를 안다니니
가스사로 오미안이요 이 참된 자가 나를 보니 미니니의 난아
지 못하고 오직 ^직 _직 니가 알거시나 난 ^난 _난 를 말마이 미요 ^요 _요 난나를
보니 미라하니 이여 뜻사람이 잡고 죽하나 굳어나 손을 돌날
사람이 업스문 그 썩 널으 지못하마라 뜻사람이 만이 멋
이끔오 ^끔 _끔 키스토가 널우 데 정조 향 ^향 _향 미엇지이 사람보당터
흐리요 비리신인이 뜻사람의 이갓치 시비 ^비 _비 흙들을 고로이
여제사장파함과 군 ^군 _군 를 보니며 잡으라하니 예수를 보더

너의 잠깐^間으로 함과잇다 가나를 보 난쟈^汝으게로도 라가리니
너의 장차 나를 차즈^逐하되 만년지못하고 나의 잇난바에 능
히 눈으지 못^不 헤리카하니 유^游되어 서로 말^音여 같오되 대장
차이 대로 형하기여 우리 가 만년지못^不 랴 양차^{羊車} 시리니^斯 가
온데 허여 져가며 시리니 사람을^人 꿀^蜜으 치려하나 냐^那 대의 말^音
난마^馬 너의 가나를 차자도 만년지못^不 고나의 잇난마에 능히
불^火으지 못^不 하리라^火 문잇지 미뇨^不 하다^火 라 절^節 꾀^皮 마즈^止 막^也 은^是 콸^知
날^日 이라^日 예수^汝 서서 불^火 너 갈^去 오되 만약^若 갈^去 한사^事 이사^事 면^勿 개나
아와^阿 마시라^使니^使 죽^死 미^未 난쟈^汝는^是 성경^{聖經}에^於 일은^一 바갓^巴 치^之 그^其 비로^而 할^可
가^可 흘^流 으리라^也 예수^汝 이^爾 름^爾 말^言 하^乎 미^未 난쟈^汝 장차^將 바^巴 둘^也 성령^{聖靈}
을^也 갈^去 으치^不 나^不 당시^時 예^以 성령^{聖靈} 이^爾 티^提 지^之 못^不 문^問 예수^汝 영화^{靈華} 치^也
못^不 헤^不 미^未 다^達 라^拉 못^不 사람^人 이^爾 이^爾 말^言 둻^也 난쟈^汝 이^爾 일^日 오^勿 되^勿 이^勿 실^實 노^勿 션^勿

지로 닉호며 죠^모 갈오디이 키리스토라. ^하며 죠^모 일오디이 키리스
토 가가리리로나 왓나냐 성경에 키리스토가 다빛의 후예로
벳니 업다빛의 사^사던 바마^을에 낫다일오지 안 앗나냐 이여^여못
사^사람의 이논이 분분^하여^여 잡고^여 져하나손^를 놀니는 쟈업다라
군^군노^노가제사^사장파^밋바리^식인^으게도 라가니^풀어 갈오디이^엇
지^지술어^오지^지 안 앗나냐^군노^노퇴^답 되이사^사람의^의 말^갓튼 쟈업
터^터이^이다^하니^고로^로 바리^식인^이 디^답하^되너^의 죠^를렛나^냐 판^판
쟝파^쟝바리^신인^에 멋는 쟈잇다^냐 다^답이^여 열어^여 사^사람은^은 놀법^법을
아^아지^지못^못하는 쟈요^도 한^못된^지라^그 중^에니^코 디^두가^이 사^나
바음^에 예수^으게^나 아^가던^자라^갈오^디 우리^가 놀법^법에^그 말^하
도^도듯^지못^하고^그 하^난바^도 아^지못^하며^가 이^사람^을 판^죄 ㅎ
랴^하니^데 디^답하여^갈오^디도^도 가^리리^로 말^마였나^냐 가^이

상고하여 보라 가리 라로 말마여 션지나 미업니라^고 이
여각각집으로도 라가 다라

요안니데 팔장

오직 예수 감남산에 나가 말서 여다시 떤에 돌아오미 빅성
이다나아오니^녀 가라 치난^되 션비파 바리신인 이음 흥하다
가 잡피운 바부인을 쓸어다 사람 가온^되 셔우고 예수^으 게 갈
오디 션싱아이부인 이음 흥^하 다 잡피운 바 되 엇^는 되 모 쇼의
법에 경계하여 스 되^이 갓 탄자^를 돌 노치라^하 여스^그 너는 엇
덧 타 말^하 나뇨 하여 일 노써^터 를 시 험^하 여 송사 할 거술 엉고
져하니 예수 헐이^를 굽어 손가락으로 써 땅을 그으되 못기
를 마지 안이^하 니^녀 널 어셔 괄 오^되 너의 중에 죄업^은 자 첫^돌
노치라^하 고^다 시 헐이^를 굽어 손가락으로 써 땅을 그으니 못

사람이 둇고 큰 쟈로 봇터 열인 것 거지 하나 식나가고 예수
혼자잇는 디부인이 암페셋거 날 예수 날 어부인 게 일오 디
부인 아녀들 이 어 되잇나냐 네죄를 통하는 사람이 업나냐 길
오디 쥬야 업나이다 예수 갈^오디나도 네죄를 통치 안갓
다가셔 다시 범치 말나 하다라 예수 죄^한한 봇 사람으게 일너
갈오디나는 이 세상에 빗치 라나를 쫓는 자는 어 두온 디 가지
안이하고 오직 성명의 빗치잇나니라 바리신^인이 갈오디네
자괴를 간증^하니 네 간증이 참이 안이로다 예수 디^한여^여
갈오디니 비록^스 사로 간증^하나니 간증이 참이라나는 어 디
로 오며 어 디로 가 물아 되^니의 눈^니가 어 디로 오며 어 디로 가
물^았지 못^하고^니의 눈^육신으로 판단^하되나는 판단 할 바업
고^착 만약^니가 판단^하면^니의 판단은 참이 문^니 훗을 노잇지 안

코나는 나보 난 아밤으로 할고 이스미요 ^너의 놀법에 쇠한일
너시되 두사람의 간증이 참이라 ^하여시니 ^나가 자괴를 간증
하고 ^나를 보닌 아밤이 죄한나를 간증한다 ^하니 ^나갈오 ^되니 ^나의
아밤이 어 تعد ^잇나 ^뇨 예수 ^되니 ^답 ^되 되날파나의 아밤을 ^되이
다 ^아지 ^못 ^하나 ^느의 ^나 ^를 알면 ^센 ^하나의 ^야 ^밤을 ^알니 ^라 ^하다
라 예수 ^성 ^면 ^고 ^암에 ^서 ^갈 ^아 ^칠 ^적 ^에 ^이 ^막 ^을 ^알 ^하 ^되 ^잡 ^난 ^사
람이 ^업 ^스 ^문 그 ^썩 ^오 ^얼 ^어 ^날 ^으 ^지 ^못 ^하 ^미 ^라 예수 ^센 ^갈 ^오 ^되
나 ^가 ^갈 ^지 ^니 ^나 ^의 ^나 ^를 ^차 ^자 ^이 ^죄 ^에 ^죽 ^으 ^리 ^니 ^나 ^갈 ^바 ^꽃 ^을
능히 ^날 ^으 ^지 ^못 ^하 ^리 ^라 ^하니 ^유 ^대 ^인 ^이 ^갈 ^오 ^되 ^며 ^말 ^이 ^나 ^갈 ^바
꽃을 ^니 ^의 ^능 ^히 ^날 ^으 ^지 ^못 ^하 ^리 ^라 ^하 ^니 ^스 ^사 ^로 ^진 ^하 ^갓 ^나 ^냐
예수 ^갈 ^오 ^되 너의 난 ^알 ^에 ^로 ^붓 ^고 난 ^우 ^으 ^로 ^못 ^트 ^며 ^너의 난
이 세상에 ^붓 ^고 ^나는 세상에 ^붓 ^지 ^안 ^아 ^시 ^니 ^고 ^로 ^되 ^일 ^으 ^되

너의 너의 죄에 죽으리라 하 문 니가 면풀을 멋지 안으미니 반
다시 너의 죄에 죽으리라 하 니 일 으로 난 뒤뇨 예수 갈오
더 맛처음 봇터 너의 개발한 바자 기로 다는 가 올어 쟁들 ^나의
개 말 ^하며 시비 코 져 ^하 되 달 ^나를 보 ^나이 눈 참이 라 니 ^되 오
게 들은 바로 써 세상 ^나 말 ^하 되 ^나 웃사람이 그 아밤 같이 쳐
말 ^하 물아지 못 ^하니 예수 갈오 ^되 너의 인자를 들 써여 반다
시 너 가 톤 줄파 쪼스사로 흉 ^하 미업 ^고 아밤이 나를 가라 친 바
갓 치 말한 줄을 알지 ^라나를 보 ^나이 가늘파 함 ^고 흉 ^하 미라 ^하
을 노 ^하 써 나지 안이 ^하 문 니가 늘 그 것거 ^는 바 ^를 흉 ^하 미라 ^하
다라 ^하 티이를 말 ^하 난 ^하 사람이 만이 멋다라 예수 유 ^되 멋난
사람으 ^게 일으 ^되 너의 만 악 니의 도에 뉴 ^하 면 실노 ^나의 데자
되 ^여 니 ^진니 ^를 알 ^면 진니 ^가 니 ^이 를 ^듯 게 ^하 리라 웃사람이

갈오더우리눈암라합이후예로종님의종이되지안았는
되었지너의를듯게하리라일으나뇨하니 예수갈오더니
실노고의게꼬하나니무론죄를횡하는자는죄의종이되나
나라종은늘집에거치안이하꼬아뜰언늘거하나니만약아
뜰이느이를노으면너의난생노이미라너의가암라합이후
엔줄아는다다못나를죽이꼬져하문너의도가너의속에담
지못하미라나는아밤의게본바뜰말하꼬너의눈아밤의게
들은바를횡한다하니더덥하리갈오니우리아반이눈암라
합이라하니 예수인의되고이만약암라합의아뜰이면반
다시암라합의에을성할테이제너이나를죽이꼬져하니꽃
하나님의게들은바진나로써너의게말하미라이는암
라합의회한방업사나너의눈너의아밤의에을성하미라

니 갈오디 우리 난간 음으로 나미안이라 우리 아밤은 한분이
니 끗하나님이라 예수 갈오디 하나님이 너의 아밤이면
너의 나를 사랑할 거시 난일의 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여 나
아오마라스사로 오미안이요 하나님이나를 보고 엿난너
너의 엿지니 말을 아지못하나 끗능히 기도를 듯지 안으리
라네의 눈 너의 아밤 미귀으 쫀터시니 너의 아밤의 육심 힘
키를 죠와 하니 티는 처음 봇터 사람을 숙이 눈 쟈라 진니 에섯
지 안으 문진니 가 그 속에 이지 안으 미니 티거 죽말 할 적에 난
스사로 말하 문티는 거 죽말하는 쟈요 쟎거 죽의 아밤이 미리
너의 나를 멋지 안으 문티 가 진나를 말하 미리 그의 중에 누 능
히 그의 죄를 발기 래니 진나를 말하 면 디의 엿지 나를 멋지 안
나나 하나님으 씨 뜻튼 쟈는 하나님의 말을 듯는 디 너의 난

듯지 안이 허문. 하나님에게 봇지 안으미란 유된인이 더 많
하여 갈오되 우리 가녀^를사마 래사람귀신품은 차라 헤니^를
어치 안으나 ^를예수^를더 맙^을하되 나 난귀신^를풀지 안이 헤고 나
의 아발^을끗^을경^을하되 오직^을너의 눈나를 멀^을시^하니^나가 자^고 영
화^를구^하치^하안이 헤고 구^하며 판^하진^을난^을쟈^를이사^하니^나실^을노^를니^이
게^고 헤^하니^나사^를랑^이니^도를^을지^하기^면 긴^을난^을죽^을을^을보^하지^하안^을는^다
하니^나유^를된^을인^이갈^을오^하되^를이^제우^를리^를난^을테^를까^를귀^를신^을품^을은^을줄^을아^하는^거
시^를압^을라^를함^을파^하선^을지^하죽^을잇^을난^을더^를네^를가^를일^을으^를기^를사^를람^이니^의도^를불
지^하기^면 긴^을난^을죽^을으^를맛^을보^하지^하안^을는^다하니^나네^를가^를우^를리^를조^를상^을압^을라
함^을죽^을은^이보^하담^을크^을나^를선^을지^하도^를소^하죽^을어^스니^자과^로써^하뉘^를라^하
나^냐 예수^를더^를맙^을하되^를만^을약^을스^를사^를로^를영^을화^하면^을느^의영^을화^가
실^을업^을스^를되^를니^의아^를발^을은^것비^의말^을하^난바^를비^이하나^님이^라

내를영화개하니 너의눈아지못하되 눈아는이라만약너
가아기못한다 말이면 거죽말호 난쟁이와갓틀거시로되
오직나는알고 그도를직히노라네^네와조상압라함이너와날
을보기률희락하다가 그보고줄거하 옛다하 미유^{미유}하임이길
오된비나이사로오습아못하여시니 압라합^{압라합}을보았더니 호
나^나에수^{에수}같오^되 실노^{실노}니의^의게^게교^교하니니 압^압다합^{다합}잇^잇기전에
너가잇^잇단호^{단호}나^나듯^듯사람이^이들을^들주^주여^여치^치고^고서^서호^호거^거늘^늘에^에
수^수 숨^숨었다^{었다}가^가던^던에^에나^나가^가다^다라

요안^{요안}님^님테^테구^구장^장

갈^갈띠^띠여^여한^한사^사람^람성^성년^년옛^옛쇠^쇠경^경을^을보^보고^고네^네자^자를^를여^여갈^갈오^오되^되랍^랍비^비야
이^이사^사람^람이^이성^성년^년여^여쇠^쇠경^경이^이나^나뉘^뉘죄^죄나^나잇^잇가^가자^자고^고니^니잇^잇가^가그부모
니^니잇^잇가^가 에^에수^수같^같오^되이^이사^사람^람파^파부^부모^모는^는다^다죄^죄짓^짓자^자안^안아^아시

되터로써 하나님의 일을 냐 타니 미라 날이 오이 러이 술적
에 우리 맛당이나 보년이 이 앤을 헝할 거시 밤이 놀으리 난 등
하영 할 자업술지 라니 가 세상에 이슬 씨여 세상이 광이 된다
하여 말을 다하고 싸에 춤바다 춤으로 써 존홀클민 그려 존홀
그로 써 쇠경의 눈에 발으고 갈오되 가시 노암듯 세시 츠라 호
니 신긴 즉 보년 쫓이라 터이 떠나 아가시 츠미 눈에 발가도라
온니 근체사랑파를 고 그동통호 물보년 자갈오디 이안 저동
녕호 텐자안이 냐혹 갚오디 기로다 혹 갚오디 안이로 되다 못
비술호다 호니 데갈오디 니가 기로다 호니 갈오디 그려면 베
눈이 엉더 캐인넷나 냐다 담호 되 예수라 호난 사람이 존홀
홀민 그려 능운에 뱉으고 니 개일으 되시 노암에 가신 츠다 호
기로니 나아가신고 이여 발갓다 하니 갈오디 터어 되잇나 표

갈오되어 아지못하노라 둑사람이 쇠경되였던 자를 다리고 바
리신인 으게가니 예수 존흘辱민 그립 그 눈을 열던 날은 사
밧일이라 바리신인 이 또한 그 엉터 캐발갓는 가풀은 되 갈오
되며 존흘辱辱 눈에 두미 눈식고 보 노라 바리신인 이 혹 갈오
되 이사 밧일을 직기지 안은 쟘니 하나님으로 말미지 안 앗
다하고 혹 갈오 되 죄인이 엊지 능히 이 갓 탄징죠를 힝하랴 하
여 그가 온디 가분분하니 고로 다시 쇠경되였던 자 게일으되
되며 눈을 열어 시니니 난터를 엉터 타일으나니 갈오 되며 눈
션지라 하다 그 유된인이 그 쇠경이 발갓다 물밋지 안 타가 그
부모를 물더 물어 갈오 되이터의 아달말하 난 바성니의 쇠경
이냐 글어면 이세 엉지 써보나니 그 부모 되 껌하여 갈오 되이
는 우리 아달이 요성니의 쇠경인 줄은 아 되 이제 엉지 써보는

줄은 아지 못하고 뉘가 그 눈을 열었는지 죄한 아지 못하고 노라
녀가 다자리여 시니 물으면 스사로 말하리라. 나그부모이
를 말하문 유덕인을 부셔워 난거시 유덕인이 일즉령한
여 만약 사람이 예수를 기리스토자 말하면 회당에니 씻기
우리라. 하 미니고로 그부모 갈오디녀가 다자리여 시니 물으
라. 하 다라. 뜻 사람이 다시 쇠경되였던 자를 물더 갈오디녀 영
화를 하나님께 돌니라. 우리눈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
라. 하 담보 되되 죄인인 줄은 뇌아지 못하고 되한 가지를 아니 뇌
가 전에 쇠경으로 이제 보노라. 하니 꽂오디 무어 슬네게 헝
흐여 엉터케 네 눈을 여더니. 하니 담보 되뇌이지 야 너의 게
고. 흐여 엉터케 네 눈을 여더니. 하니 담보 되뇌이지 야 너의 죄
한 그데. 장도. 그전에. 나. 뜻 사람이 욕하고 여갈오디. 너는 그데

자나우리는모소의테자라

하나님이모소에말한거순우

하나님의말한거순우

식아되다못이사람은어디로붓터는지우리아지못하노라
그사람이더답하여갈오되너눈을열었난더너의가그어

더로붓튼지아지못한다하니이실노고고다우리

하나

님이죄인을듯지안으되오직

하나님을공경하꼬그뜻을

힝호눈쟈를듯난줄을아노라

자

꼬로성느쇠경의눈열었다

난사람을듯지못하여시나이사람이

하나님으로말구지

안아시면능히할바업다하니더답하여갈오되너는전에죄

에셔성한거시우리를갈아칠나나냐하고드며여너쏘다라

여수그너쏘기물듯고만나여갈오되너

하나님의아달

올밋나냐더답하여갈오되

쥬야뉘니잇가너가이밋갓나

이다예수갈오되너보와스니널노터부리말하난쟈가기로

다갈오더 주야니잇나이다호고이여절호니 예수갈오
히니가판죄를위호여이세상에와보지못호난쟈는보게호
고보난쟈난쇠경되게한다호니함게잇는바리신인아이말
을듯고갈오더우리가도한쇠경이냐 예수갈오더너의쇠
경이면죄업스되니이이제우리본다말호니니의죄에뉴한
다하라

요안니데습장

너실노너의개고호나니문으로드지안꼬달온곳으로념어
양이울이예날으난쟈눈도적이며강도요문으로들어가는
쟈난양을치는사람이니문적귀는쟈위호여열꼬양이그술
이름들이미트엘홈으로써그양을불더인도호여니여다갓
꼬암서향호면양이좆츠문그술이를알미요달온사람온좆

지안이 허고 다못달아나 문달은 사람의 솔이 를 아지 못 허 미
라 예수 이비사로 써뭇사람으게 말 허 되 그 말한 바를 아지
못 허니 예수 다시 갈오 되니 실 노녀의 계일으나니 나는 양
의문이라 나를 암서 온 자 난다 도적이며 강도니 오직 양이 듯
지지 아 이 허고 난문이니 날 노 말미 억 들어 가면 구완 허고
출입 허여 썰을 엉나니라 도적이와 셔 눈도 적 허여 죽이며 망
하고 져 안으 미업스되 니가 와는 써 싱명을 잇게 허고 쏘 성 허
물잇게 허니라 나는 션이 치는 자니 션이 치는 자는 양을 뛰
허여 목숨을 빙리 되 싹군이 양을 치난 자가 안이니 양이자 괴
거 시안이 되여 스량이 널으 를 보면 양을 써나 달아나 미스량
이 양을 잡고 그 를 이 를 헷치나니 괴는 싹군이 되여 양을 도라
보지 안으 미요 나는 션이 치는 산니니 가 니 거슬 알고 니 거시

신한나를 알기를 아밤이나를 알고 니가 아밤을 아난 것 같트
니도 니가 양을 위하고 목숨을 버리나니라 니가 물은 양이 이
스 되이 물이에 봇지 안은 자는 니 맛당이 카도 면티 목숨이
풀듯고 한부리이 한 치난 사람이 되리니 이를 위하여 아밤이
나를 사랑하고 목숨을 버리고 서 다시 바드미니 사람이 서
게취하 미간이요 니가 스사로 버리미라니 가버리 난 권세와
다시 뱃난 권세 이스니 이명은 너 가아반이 계갓들 었다하니
이여 유디인이 이 말노 말미여 다시 분분히 여만이 갈오디더
귀신을 풀어밋쳐 시니 엊지들으리요 하고 혹갈보디이 귀신
풀은 쟈의 많은 안이라 귀신이 능히 쇠경의 눈을 열수 하다라
예루살임에 텐을 팔역한 절지 눈물이라 예수성 텐에 소
노돈의 헌봉에서 왕호는데 유디인이 둘더 셔일이 되니 우

리들로 황제는 지가 엣색 노년 만약 키리스토면 발키써
우리게 말하라 예수님이 되고 멀에 있으면 도고 이 멋지
안이 있고 누가 누의 아반이 애 흠으로 써 한 밤에 이 수를 위
호여 간증하되 땅 뜻과 이 멋지 안이 하둔고 이 양에 봇지 안이
미라 누의 풍에 그 솔이 뜰듯고 누 죽 헬고 토니 를 죽나니 누
가 형성으로 써 텁주 우 토가 진 괴망하지 안고 아울나 누의
손에 앗는 자업스리니 텁으로 써 나 뜰은 아반이 난만 둘에 콘고
로 놓히 아반이 손에 앗난 자업스니 놀파 아반이 노한 나이 된
다하고 유대인이 다시 둘을 친 하며 터고 져 하거 놀 예수님이
법하고 아반이 떠 헬면 베운 헬에 누이 터이 죄보이노 뒤이
데 놓은 무 삼에 앤위 하명 떠노 써 나 뜰에 누나 죄하니 유대인이
되 면 하되 누리 가 떠노 써 그 뜰에 누 하명 죄위 하마이

이요다못참남하율위하는거시니난사람인테스사로 하
나님이라하미라하니 예수디답하되너너의를신이라말
하미너의눌법에쓰지안았나냐만약 하나님의도를밧
드는쟈 신이라청하면성경은능히페티못할거시아반
이가갈나니여세상에보닌쟈너스사로 하나님의아딸이
라하루로참남하다일으나냐니가난야반이의일을힝치안
으면나를밋지안이하고 만약횡하면비록나를밋지안으나
그일은밋으라너의아반이난내게있고나는또한아반이게
잇는줄을알고또명백하리라하니못사람이다시잡고져하
거날예수그손에버서나가다라다시윤단밧게나아가요안
너처음밥팁레버푸던곳에닐으러거기뉴호니사람이만이
나아와갈오더요안나는괴괴한징조는횡치못하여시나를

